

'로봇 심판' 도입된 프로야구 시범경기 투구 추적 성공률 99.9%

KBO, 피치 클록 시범 운영
경기시간 전년비 23분 단축

올해 KBO리그 시범경기에서 도입된 자동투구판정 시스템(ABS)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ABS는 12일까지 시범경기 19경기 동안 99.9%의 투구 추적 성공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ABS는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투수의 공 궤적을 추적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주심은 이어폰으로 이를 듣고 폴 사인을 낸다.

정규시즌 ABS 도입을 앞두고 시범경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100%에 육박하는 투구 추적 성공률이 나온 것이다.

KBO는 "투구 추적이 실패한 사례는 중계 와이어 카메라가 이동 중 추적 범위를 침범해 투구 추적이 실패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날씨 변화, 이물질 난입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00% 트래킹 추적 성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적 실패 시 대응 매뉴얼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심판과



KBO리그에서 피치 클록이 시범 운영된다. 사진은 수원 KT 위즈파크에 설치된 피치 클록. <사진=KT 제공>

ABS 운영요원 교육을 해 경기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은 19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4.5건의 위반(경고)이 나왔다. 총 85건이며 투구 위반이 38건, 타자는 46건이었다.

특히 시범경기 첫날 39건, 2일차 21건, 3일차 16건, 4일차 9건의 위반이 발생, 경기가 진행될수록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선수단이 규정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피치 클록이 운영된 19경기 평균 시간은 2시간 35분이었다. 이는 2023년 시범경기 20경기 2시간 58분과 비교해 23분 단축된 것이다.

KBO는 피치 클록 정식 도입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전반기 시범 운영을 예고해 놨다.

KBO는 "피치 클록 시범운영에 따른 각종 관련 통계와 팬들의 선호도,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정식 도입 시기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13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월드스타 육성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월드스타 사업에 선정된 선수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유망 선수 8명 '월드스타'로 키운다

전북자치도체육회, 골프 안해천·수영 이서아·육상 최명진

테니스 조세혁·바이애슬론 박유진·배드민턴 이민재 등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올해에도 전북 체육을 이끌 유망 학생 선수를 집중 육성한다.

13일 전북체육회는 '2024 월드스타 육성 간담회'를 열고 올해 월드스타 사업에 선정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이 사업은 도 체육회가 한국 체육을 빛낼 잠재력이 높은 우수 선수들을 선정한 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키기 위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올해 월드스타 육성 선수로 선정된 선수는 골프 안해천(성원고), 수영 이서아(전북체고), 육상 최명진(전북체고), 테니스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 당구 김민준(부송중), 바이애슬론 박유진(안성중), 배드민턴 이민재(정주고), 소프트테니스 박연화(순창여중)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다.

도 체육회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훈련용품 제공을 비롯해 스포츠 심리 등 과학적인 시스템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동기부여 등을 위해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참관 등도 진행한다.

실제 지난해 경우 월드스타로 선정된 선수 가운데 일부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참가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선수들이 오롯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전북 체육을 넘어 한국 체육을 이끌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파리올림픽 응원 문화 선도

대한체육회-하이브, 협약 체결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3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대표 박지원)와 올림픽 응원 문화 선도를 위한 공동 협력 약속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정민 하이브 IPX 사업전략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체육회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 및 문화산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응원 문화 혁신과 선도, K-컬처 공동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하이브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나서는 팀코리아 선수단을 응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뉴시스

'태권도 스포츠 관광' 열풍, 베트남에서

베트남 현지 여행사

태권도원 팸투어 참가

16~17일 이틀간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춘)와 함께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2000만명 달성의 일환으로 태권도원 특수 목적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에 앞서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태권도원으로 초청, 팸투어를 갖는다.

이번 팸투어는 16일과 17일 베트남 현지 여행사 대표자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이기도 한 올해, 태권도원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5월부터 태권도 체험 등 스포츠 관광을 위한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팸투어에 참가하는 베트남 여행 관계자들은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태권도 체험과 태권도원 투어, 상설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체험에 나서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현지에서 태권도원 관광객 모객에 나선 여행 관계자들에게 도복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태



지난 1월 태권도원을 방문한 중국 심천시 태권도 수련생이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사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권도를 직접 느끼고 난 후 실질적 모객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6일과 17일 양일간 미국 태권도 수련생 방문단도 찾는 등 해외에서 태권도 수련과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한 태권도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라며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한국 관광 100선 및 웰니스 관광지·코리안유니크베뉴에 선정되었다.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수련 프로그램 및 체험·즐거움을 운영하며 스포츠 관광 목적으로 우목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1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라며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한국 관광 100선 및 웰니스 관광지·코리안유니크베뉴에 선정되었다. 내·외국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수련 프로그램 및 체험·즐거움을 운영하며 스포츠 관광 목적으로 우목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천혜인, 독일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여자복식 2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출신 천혜인 배드민턴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여자복식 2위를 차지하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13일 고창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천혜인(전주성심여자고) 선수는 김태연(경기 영덕고) 선수와 한 조를 이뤄 지난 6~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4 독일 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여자복식결승에서 헝가리-루지아유에(중국)조와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0-2(25-27, 19-21)로 패해 여자복식 2위를 차지했다.

천혜인 선수는 고창초등학교 출신으로 올해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2학년이다. 특히 지난해 태국 주니어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3위, 밀양 원천 요넥스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혼합복식 1위, 아시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복식 2위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찬호·김병현·이대호

MLB 서울시리즈 해설 맡아

박찬호·김병현·이대호·김광현 등 한국야구 전설들이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2024에 함께한다. 쿠팡플레이는 네 사람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이 행사에 중계진으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과 2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개막 2차전 포함 스페셜 경기 등 총 6경기 중계는 정음경 캐스터와 함께 김선우·송재우 해설위원이 맡는다. 박찬호·김병현·이대호·김광현은 게스트로 함께한다.

이번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모든 경기는 쿠팡플레이에서만 볼 수 있다. /뉴시스

그라운드 서학 2024

GROUNDS SEOHAK

김누리 이주원 박재연
손은영 박미정
조진규 김시오 노미정

INVITATION EXHIBIT

2024. 3. 21 ~ 4. 10

Sëohak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AP 9 / 콘서트서학